

# 일부 지역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성적·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경험정도과 상담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진경 (영동전문대학 간호과)

김은숙 (서울보건전문대학 치위생과)

이정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목 차

I. 서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고찰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 신체적, 정신적 및 심리적 변화가 심한 시기로서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이 필요하고 성숙한 인격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에 반해 정신 및 심리적 발달은 미숙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갈등을 겪는다(Stone & Church, 1975). 그래서 Hall은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기간"이라 하였고, Stone과 Church는 인간발달과정의 "중간역"이라 말하였으며, Freud는 "혼란의 기간"이라고 하여 인간이 태어나서 겪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체성 확립이라는 발달상의 과제를 완수하여야 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밖으로 표출되어 여러가지 행동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조와 남, 1994).

그리고 주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영양상의 문제나 무절제한 식사로 인한 비만 등의 신체적 문제, 남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친구들과 간에서 우월감을 차지하기도 하며 자신의 미래의 계획이나 장래에 대한 생각의 부족으로 자아정체감이 혼란되어 쉽게 가출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알콜, 마약에 까지 손을 뻗치게 된다. 또한 무분별한 성도덕관념으로 혼전임신, 미혼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른 청소년 대책은 최근 큰 진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청소년의 건전 육성책의 과제로서 국민전체가 관심을 갖고 선도해야 한다는 연대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대책의 충실과 진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아직 미해결의 분야가 적지 않은 편이며 더우기 급격한 사회정세의 변동은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기본성장발달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문제(이수일, 1978; 김인규, 1984; 함용, 1985; 민 과 김, 1992; 홍과 신, 1994)나 자신의 신체상태와 관련된 신체상 정립등의 문제(홍과 홍, 1985; 박 등, 1997; 홍과 신, 1994), 청소년 가출, 비행, 우울 등의 문제(조 등, 1996; 송 등, 1996; 조와 남, 1994; 김 등, 1995; 김 등, 1993; 강 등, 1995; 김 등, 1997)를 어느 한 측면에서 다룬 연구가 중심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청소년의 전반적 문제점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제는 이러한 전반적 청소년기의 문제를 통합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와 오랫동안 고수해 오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 개편에 자극이 될 수 있는 통합된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나 아직 그러한 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태까지의 청소년관련연구의 개념들을 다 통합해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성장발달 특성을 이해하며 다차원적인 면에서의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욕구충족에 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교과과정에서 특별한 과목으로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청소년관련개념들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만드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문제를 가진 청소년대상의 간호중재방법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문제를 선도하고 수행하는 청소년관계기관에 연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관계문제의 지도육성과 계몽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본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의 경험정도를 사정하고 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를 파악하여, 청소년 간호중재방법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 교과목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경험정도와 이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별 문제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별 문제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별 문제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한다.
- 6)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간 문제경험정도의 상관관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7) 대상자의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문제의 경험정도 :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의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 도구에 의해 측정된 경험정도 점수이며, 연구분석개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 각 영역별 문항의 합점수이거나 혹은 4영역 전체점수를 의미한다.

2)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 :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점수이며, 연구분석개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의 각 영역별 문항의 합 점수이거나 혹은 4영역 전체점수를 의미한다.

## II. 문헌고찰

청소년의 성장발달 특성별 기본육구의 중요성을 피력한 연구들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1978)은 중·고등학생의 신체발육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남·녀 중고생들은 체능·체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있었고, 남자는 15세 여자는 17세에서 자신의 신체건강을 알맞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상 정립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1984)은 청소년의 질병반응을 고려한 간호중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청소년 발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최와 이(1982)는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정신의학적 위험도 평가에서 도시의 청소년이 농촌의 청소년보다 신체적 질환, 외상, 환경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청소년기의 과업을 잘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 적어야 될 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안정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홍(1984)은 청소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에서 사춘기의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심리적 발달, 자아정체감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지도로 학교교육, 안전교육, 성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야 함을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청소년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작게는 학교건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Fulton &

Oberteuffer(1970)는 청소년의 올바른 요구사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으며, Elbert(1984)는 국민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특성별 기본육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미국 National Professional School Health Education Organization(1984)에서는 완전한 학교건강교육내용에는 성장발달, 영양, 개인건강, 질병예방,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건강, 약물남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성장발달 특성과 육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고 단편적으로 청소년의 기본육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몇가지 찾아볼 수 있었다.

김(1973)의 서울시내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소화기 증상 발현상태에 관한 보고에서는 전체 응답자 1,538명 중 838명(54.5%)이 '소화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의 61.9%, 고등학교 2학년의 60.2%가 소화기 증상을 경험함으로써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학생의 20.9%, 어느 한 쪽 부모와의 관계만 원만한 학생의 19.3%, 양쪽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의 20.5%가 소화기 증상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사양상별 증상경험빈도는 식사가 규칙적인 학생의 19.4%, 불규칙적인 학생의 21.1%가 증상을 경험함으로써 불규칙적인 식사가 중·고등학생들의 소화기 증상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박(1982)의 청소년 장애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녀 큰 차이없이 중3(68.8%)과 고3(43.1%)에서 학업문제가 특이하게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학업문제(34.5%), 부모와의 불화(15.2%), 경제적 곤란과 친구와의 불화(21.9%) 등이 청소년 장애환자의 의미있는 생활사건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1993)의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체학생중 82.8%가

성적이나 시험, 공부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하였고, 진로나 진학 56.4%, 가치관과 관련된 스트레스 42.4%, 심리-성격적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42.2%, 건강용모와 관련된 스트레스 38.4%, 여가시간의 부족 등 취미오락과 관련된 내용에서 26.7%, 대인관계영역에서 22.1%, 가정경제적인 문제영역 21.2%, 가정문제영역 20.0%, 학교생활 영역에서 19.2%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 등(1997)의 고등학생 스트레스의 횡문화적 연구에서는 연변의 한족, 조선족, 서울의 한국 학생의 스트레스영역, 대처방식 및 대처결과로 인한 정신신체 증상의 3가지 차원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체 스트레스점수는 세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영역에서 한족은 친구관계, 가정문제, 이성문제, 장래·진학문제, 종교문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서울 학생은 공부문제, 학교생활, 취미·오락문제, 심리·성격문제, 가치관 문제, 장래·진학문제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선족은 취미·오락문제, 가정·경제문제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녀를 비교했을 때 한족은 남녀별로 모든 스트레스 영역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서울 학생에서는 친구관계, 가정문제, 학교생활, 장래·진학문제, 가정·경제문제, 종교문제 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족 학생은 집단적인 문제에, 서울 학생은 개인적인 문제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한족은 적극적 대처, 서울 학생은 소극적 대처, 조선족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모두를 사용하고 있었다. 정신신체증상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서울학생들이다. 이 점수는 스트레스에 대한 성공적이지 못한 대처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홍과 신(1994)의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 정체감 발달연구에서 우울점수상에서 중·고등학생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우울 점수를 보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사춘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이성에 대한 감정과 태도에서 개방적이어서 성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고등학생이 가장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신체적 변화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자 중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감위기점수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정체감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중 고등학생 집단에서 모두 절반이상이 이성의 친구와 손을 잡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남자고등학생의 98%, 남자중학생의 84%, 그리고 여자중·고등학생 50% 이상이 음란 비디오나 잡지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자위 행위나 성적인 내용의 영화나 잡지를 많이 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러한 행동의 빈도가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정체감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체감위기를 겪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더 우울감을 느끼고 신체상과 성적 자아상이 부정적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성행동도 더욱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감 위기를 겪고 있는 집단이 정체감 위기를 겪지 않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점수를 보였으며, 신체상과 성적 자아상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물질남용에 관한 최근 연구보고에 의하며 물질을 남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민병근, 1979; 주 등, 1993) 남용되는 물질로는 술, 담배, 신경안정제, 각성제, 환각제, 마약, 대마초, 화공약품, 휘발성 유기용제뿐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이 용이한 항히스타민제, 코데인함유 항기침약물, 진해제 등으로 그 범위가 보다 다양화 되고 있다(민과 김, 1987).

강 등(1995)의 청소년기의 물질남용에 관한 예비적 연구에서는 대상군에서 각종 물질의 경험빈도가 음주 78.7%, 흡연 29.9%, 각성제 14.7%, 수면제 3.3%, 대마초 0.7%, 본드 또는 신나 1.6%로 나타났다. 흡연, 음주, 본드 또는 신나의 최초 경험시기는 대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때가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물질남용의 조기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 물질의 경험자중 현재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흡연 20%, 음주 8.4%, 본드 또는 신나 19.2%였고, 현재도 가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 학생은 흡연경험자의 28%, 음주경험자의 48.9%, 본드 또는 신나 경험자의 23.8%였다.

물질 무경험자들에서 물질사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보았을때 흡연의 경우 77.5%에서, 본드 또는 신나의 경우 95.1%에서 앞으로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였고, 음주의 경우 56.6%에서 앞으로 적당히 사용을 하겠다고 응답을 하여 음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흡연이나 본드 또는 신나의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 음주, 대마초, 본드 또는 신나 각각 물질의 경험빈도와 사용습관 간에 관계를 분석해 보았을때 물질을 혼합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 및 흡연을 자주하고 대마초 및 본드 또는 신나의 경험이 있을수록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낮고 지각을 자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으로 건강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양하게 주장되고는 있으나 이는 매우 단편적이고 한정된 것이어서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중재하기에는 빈약한 자료라 여겨지므로 보다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술적 조사연구로서 질문지법에 의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의 경험정도와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를 파악하도록 설계되었다. 연구대상은 영동지역에 위치한 4개의 남·녀 중학교와 4개의 남·녀 고등학교를 임의추출하여 성의있게 응답에 참여한 학생 총 6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중·고등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 등(1990)이 청소년의 기본육구 내용을 기반으로 사전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해 직접 제작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선택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11문항, 영역별 문제 85문항인 총 96문항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문제영역 19문항, 정신적 문제영역 19문항, 성적 문제영역 17문항, 사회문화적 문제영역 30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영역별 문제경험 정도'는 「자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영역별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는 「많이 필요하다」 3점, 「약간 필요하다」 2점, 「필요하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의 과정을 거친 결과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의 경험정도'가 Cronbach's  $\alpha = .90377$ ,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가 Cronbach's  $\alpha = .96545$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 3.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1997년 6월23일부터 7월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해당 학교에 공문을 띄운 후 연구자가 직접 학교장을 방문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호교사의 협조를 받아 각 학교에서 2개반씩을 임의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질문지 작성이 끝난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질문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제외한 후 SAS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2)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 경험정도와 이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4개의 영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3)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t-test로 분석하였다.

4)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ANOVA로 분석하였다.

5)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ANOVA로 분석하였다.

6)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간 문제 경험정도의 상관관계를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로 분석하였다.

7)대상자의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8)연구도구의 신뢰도검증을 위해 reliability test 를 이용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고찰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 257명(42.7%), 여학생 344명(57.2%)이었고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134명(22.3%), 중학교 2학년 133명(22.1%), 중학교 3학년 44명(7.3%), 고등학교 1학년158명(26.2%), 고등학교 2학년 93명(15.4%), 고등학교 3학년 39명(6.4%)이었다.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01)

특성	구분	인수	(%)
성별	남	257	(42.7)
	여	344	(57.2)
학년	중1	134	(22.3)
	중2	133	(22.1)
	중3	44	(7.3)
	고1	158	(26.2)
	고2	93	(15.4)
종교	고3	39	(6.4)
	기독교	136	(22.6)
	천주교	44	(7.3)
	불교	250	(41.6)
	유교	14	(2.3)
아버지 직업	기타	3	(0.5)
	없음	154	(25.6)
	상업, 사업	254	(42.2)
	농업	60	(9.9)
	공무원	93	(15.4)
아버지 학력	교육자	31	(5.1)
	회사원	111	(18.4)
	노동	30	(4.9)
	군인	8	(1.3)
	무직	7	(1.1)
어머니 직업	기타	7	(1.1)
	국졸	70	(11.6)
	중졸	101	(16.8)
	고졸	288	(47.9)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142	(23.6)
	주부	374	(62.2)
	상업	129	(21.4)
	회사원	54	(8.9)
	공무원	5	(0.8)
부모의 결혼상태	교육자	15	(2.5)
	노동	17	(2.8)
	기타	7	(1.1)
	결혼동거	567	(94.3)
가정경제	이혼	12	(2.0)
	별거	12	(2.0)
	사별	10	(1.6)
	상	23	(3.8)
가정생활 만족도	중상	147	(24.4)
	중	369	(61.4)
	중하	52	(8.6)
	하	10	(1.6)
	매우 만족스럽다	116	(19.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스럽다	306	(50.9)
	그저 그렇다	145	(24.1)
	불만족스럽다	33	(5.4)
	매우 불만족스럽다	1	(0.1)
	매우 만족스럽다	27	(4.4)
계	만족스럽다	189	(31.4)
	그저 그렇다	256	(42.6)
	불만족스럽다	71	(11.8)
	매우 불만족스럽다	58	(9.6)
	계	601	(100)

종교별로는 불교(41.6%)가 가장 많았고 무교(25.6%), 기독교(22.6%), 천주교(7.3%), 유교(2.3%) 순이었으며 기타(0.5%) 종교에는 원불교와 천도교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별 분포에 있어서는 역시 상업·사업(42.2%)이 가장 많았고 도시지역과는 달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9.9%)도 있었고 기타(1.1%)는 모두 사별의 경우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역시 주부(62.2%)가 대부분이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37.7%)는 서울지역에서 실시한 김 등(1990)의 연구(59%)와 비교해 볼 때 적은 수였는데 이는 도시에 비해 취업의 기회가 적고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 본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47.9%)이나 대졸이상(23.6%)이 대부분 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50.0%)과 중졸(24.2%)이 대부분 이었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대부분이 결혼동거(94.3%)였으며 나머지의 경우는 이혼(2%), 별거(2%), 사별(1.6%)의 순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가정경제의 정도는 대부분이 중간이상(89.6%)이라고 응답해 서울지역 청소년들의 경우(48.8%)보다 월등히 많은 수가 자신의 가정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정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만족 또는 만족'(70.2%), '그저 그렇다'(24.1%) '불만 또는 매우불만'(5.6%)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만족 또는 만족'(35.9%), '그저 그

렇다'(42.6%) '불만 또는 매우불만'(21.4%)이라고 응답해 학교생활에 대해 전체의 1/5정도는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 별 문제경험정도과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 영역별 경험정도과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실제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표2-1>과 같고, 문항내용은 <표2-2>와 같다.

문제의 경험정도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우선 신체적 영역에서 살펴보면 평균 51.8%가 문제를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의 항목별 분포를 보면 50%이상의 대상자가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고 있는 항목은 전체 19항목 중 10항목으로 「피로를 느낀다(96.5%)」, 「어지럽다(79.0%)」,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는다(60.2%)」, 「과식을 한다(70.8%)」, 「얼굴이나 목, 등 같은 곳에 여드름이 나서 고민이다(50.7%)」, 「머리가 아프다(76.7%)」, 「아침식사를 걸른다(52.0%)」,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55.2%)」, 「수면과 휴식이 부족하다(82.3%)」, 「허리가 아프다(66.8%)」 등으로 김 등(1990)의 연구결과와 함께 나타났다.

정신적 영역의 문제 경험정도는 평균 54.2%가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별로 50%이상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고 있는 항목

<표2-1>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경험정도과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 (N=601)

항목	문제의 경험정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		
	그렇지 않다 수 (%)	가끔 그렇다 수 (%)	자주 그렇다 수 (%)	필요하지 않다 수 (%)	약간 필요하다 수 (%)	많이 필요하다 수 (%)
신 체 적(19)	290(48.1)	213(35.4)	98(16.3)	407(67.7)	137(22.8)	57( 9.4)
정 신 적(19)	275(35.4)	226(37.6)	100(16.6)	376(62.4)	149(24.7)	76(12.7)
성 적(17)	475(79.1)	97(16.1)	29( 4.7)	475(79.0)	87(14.5)	39( 6.4)
사회문화적(30)	365(60.6)	165(27.4)	71(11.8)	429(71.3)	110(18.3)	62(10.3)

은 전체 19항목 중 13항목으로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고민이다(51.9%)」, 「 괜히 불안하고 걱정스럽다(64.5%)」, 「 괜히 화가나고 신경질이 난다(74.5%)」, 「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다(63.7%)」, 「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56.0%)」, 「 반항하고 싶다(60.5%)」, 「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든다(62.5%)」, 「 공상이나 생각이 많아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한다(82.3%)」, 「 외모에 신경이 쓰이고 외모 때문에 고민을 한다(71.5%)」, 「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57.0%)」, 「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한다(60.4%)」, 「 철학적인 문제나 인생관, 가치관, 사회문제 등에 관심이 있다(58.7%)」, 「 미래의 소원을 위해 차분히 계획을 짜고 실천한다(51.2%)」 등으로 역시 김 등(1990)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거의 같았다.

한편 성적 영역의 문제 경험정도에서는 평균 20.9%만이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50%이상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고 있는 항목은 전체 17항목 중 '성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54.0%)'의 1문항 뿐이었으며 「이성과 성적인 접촉을 한다」 문항에서는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이 서울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김 등(1990)의 연구결과 8.5%보다 낮은 6.3%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영역의 문제 경험정도는 평균 39.3%가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목별로 50%이상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고 있는 항목은 전체 30항목중 10항목으로서 「취미생활을 하거나 설만한 시간이 없다(70.2%)」, 「여가시간을 음악감상, 독서, 운동 등으로 잘 활용한다(57.7%)」, 「부모님과 내 문제를 의논한다(54.9%)」, 「친구 문제로 고민한다(63.7%)」, 「친구들과 어울려 서로의 고민을 얘기한다(62.8%)」, 「내가 누구인지 내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60.73%)」, 「진로문제로 고민한다(75.3%)」,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한다(83.3%)」, 「나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69.8%)」, 「뭔가를 하고 싶지만 시작할 수가 없다(64.8%)」 등 이었고 「술, 담배, 환각제를 사용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청소년이 19.4%, 「술을 마신다」 29.9%,

「담배를 피운다」 11.4%, 「환각제를 사용한다」는 청소년도 1.5%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대부분 문제 경험 항목의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입시제도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전 영역에 서로 연관성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려된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살펴보면 영역별로 신체적 영역에서는 평균 32.2%가 '약간 혹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항목별로 보아 50%이상 '상담이나 교육을 필요'하고 있는 항목은 전체 19항목 중 '수면과 휴식이 부족하다(50.9%)'의 1항목뿐이었고 40%이상 범위에서 「머리가 아프다」, 「피로를 느낀다」, 「어지럽다」, 「허리가 아프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의 순으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신적 영역에서는 상담이나 교육이 '약간 혹은 많이 필요'하다가 평균 37.5%로 나타났고 50%이상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항목은 전체 19항목 중 2항목 「괜히 화가나고 신경질이 난다(50.0%)」, 「공상이나 생각이 많아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한다(55.0%)」 등으로 김 등(1990)의 연구에서의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7항목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성적 영역에서는 평균 20.9%가 상담이나 교육이 '약간 혹은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항목별로는 전체 17항목 중 50%이상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항목은 한 항목도 없었다. 문제 경험정도에서 「성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54.0%)」고 응답했던 항목의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43.1%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성적 영역에 대한 내용을 친구, 책, 잡지, TV 등을 통해서 얻고 있으며 성과 관련된 영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식의 고정적 사고와 개방화하여 상담,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기 보다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생활양식,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 사려된다.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상담이나 교육이 '약간 혹은 많이 필요'하다는 평균은 28.6%이었고 50%이상 '상담이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항목은 전체 30항목중 2항목인 「진로문제로 고민한다(75.3%)」, 「학 교성적 때문에 고민한다(83.3%)」로 역시 진학과

<표2-2>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내용

문제영역	문항내용
신체적 영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로를 느낀다</li> <li>2. 어지럽다</li> <li>3.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먹는다</li> <li>4. 과식을 한다</li> <li>5. 몸이 전반적으로 허약하다고 느낀다</li> <li>6.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과식을 하면 변비가 된다</li> <li>7. 잇몸에서 피가 난다</li> <li>8. 충치 때문에 고생이다</li> <li>9. 얼굴이나 목 등 같은곳에 여드름이 나서 고민이다</li> <li>10. 머리가 아프다</li> <li>11. 과격한 운동으로 몸에 부상을 입곤한다</li> <li>12. 몸을 잘 씻지 않는다</li> <li>13.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를 줄이거나 안먹는다</li> <li>14. 아침식사를 걸른다</li> <li>15. 코피가 잘난다</li> <li>16.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li> <li>17. 수면과 휴식이 부족하다</li> <li>18. 허리가 아프다</li> <li>19.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li> </ol>
정신적 영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몸이 너무 뚱뚱한 것 같아 고민이다</li> <li>2. 몸이 너무 마른것 같아 고민이다</li> <li>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고민이다</li> <li>4. 잠들기가 어렵다</li> <li>5. 왠지 불안하고 걱정스럽다</li> <li>6. 괜히 화가나고 신경질이 난다</li> <li>7.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다</li> <li>8. 매우 무섭고 공포심이 생긴다</li> <li>9.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li> <li>10.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li> <li>11. 반항하고 싶다</li> <li>12. 혼자있다는 느낌이 든다</li> <li>13. 공상이나 생각이 많아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한다</li> <li>14. 외모에 신경이 쓰이고 외모 때문에 고민을 한다</li> <li>15. 내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li> <li>16.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죽고싶은 충동을 느낀다</li> <li>17. 다른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한다</li> <li>18. 철학적인 문제나 인생관, 가치관, 사회문제 등에 관심이 있다.</li> <li>19. 미래의 소원을 위해 차분히 계획을 짜고 실천한다</li> </ol>
성적영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리가 불규칙하다</li> <li>2.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적다</li> <li>3. 혹시라도 임신이 되지 않았는가 걱정된다</li> <li>4. 월경시 통증이 심하다</li> <li>5. 여성과 성적인 접촉을 한다</li> <li>6. 내가 성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스럽다</li> <li>7.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할까봐 걱정스럽다</li> <li>8. 성기에서 피가 난다</li> <li>9. 성적충동이나 호기심을 억제할 수가 없다</li> <li>10. 자위행위를 한다</li> <li>11. 자위행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고민을 한다</li> <li>12. 아침에 일어나보면 팬티에 끈적끈적한 것(몽정)이 묻어 있다</li> <li>13. 성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li> <li>14. 목소리가 굵어서 말할때 창피하다</li> <li>15. 월경때마다 부끄럽고 당황스럽다</li> <li>16. 유방이나 엉덩이가 커서 고민이다</li> <li>17. 겨드랑이나 회음부에 털이 나서 고민이다</li> </ol>
사회문화적 영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li> <li>2. 형제들간에 갈등이 많다</li> <li>3. 부모님의 불화로 늘 불안하다</li> <li>4.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무관심하다</li> <li>5. 취미생활을 하거나 설만한 시간이 없다</li> <li>6. 여가시간을 음악감상, 독서, 운동 등으로 잘 활용한다</li> <li>7. 부모님과 내문제를 의논한다</li> <li>8. 이성교제문제로 고민한다</li> <li>9. 친구문제로 고민한다</li> <li>10. 이성친구와 만난다</li> <li>11. 동성친구가 이성친구처럼 느껴진다</li> <li>12. 집을 뛰쳐나가고 싶거나 혹은 실제로 집을 무작정나와서 방황한다</li> <li>13. 친구들과 어울려 집에 늦게 들어간다</li> <li>14. 친구들끼리 집단으로 싸운다</li> <li>15. 친구들과 어울려 서로의 고민을 얘기한다</li> <li>16. 친구들이나 여러사람들이 모인집단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낀다.</li> <li>17. 술담배 환각제를 사용해 보고 싶다</li> <li>18. 술을 마신다</li> <li>19. 담배를 피운다</li> <li>20. 환각제를 사용한다</li> <li>21.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li> <li>22. 내가 누구인지 내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li> <li>23. 진로문제로 고민한다</li> <li>24. 학교성적 때문에 고민한다</li> <li>25.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다</li> <li>26. 물건을 부수거나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li> <li>27. 어른이 되는것이 부담스럽다</li> <li>28. 나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li> <li>29. 뭔가를 하고 싶지만 시작할 수가 없다</li> <li>30. 모든일을 내주장대로 밀고 나간다</li> </ol>

관련한 문제가 높게 나타나 학생들에게 비중이 클 수 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에서 처럼 대상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상담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문제 경험정도의 점수가 높다고 반드시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대체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이런 자료를 토대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그들의 기본욕구를 염두에 두고 상담이나 교육을 한다면 보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 3.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의 경험정도 및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와의 관계

남학생, 여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전체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김 등(1990)의 연구에서와 같았다( $P < .001$ ).

남학생, 여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3-2>로 전체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상담이나 교육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역시 김 등(1990)의 연구결과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학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3-3>

<표3-1> 남학생, 여학생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 (N=601)

문제영역	구분	인수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신체적	남학생	257	31.7860± 4.5196	-5.5594	.0001
	여학생	344	33.8924± 4.6951	-5.5288	.0000
정신적	남학생	257	31.7431± 5.4210	-7.9804	.0001
	여학생	344	35.5262± 6.1615	-7.8344	.0000
성적	남학생	257	19.5292± 2.6473	-12.3204	.0001
	여학생	344	22.7267± 3.7136	-11.7509	.0000
사회문화적	남학생	257	45.1829± 7.4536	-3.7390	.0002
	여학생	344	47.4506± 7.2231	-3.7561	.0002
전체점수	남학생	257	128.2412±15.9583	-8.2436	.0001
	여학생	344	139.5959±17.6567	-8.1240	.0000

<표3-2> 남학생, 여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 (N=601)

문제영역	구분	인수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신체적	남학생	257	26.3541± 6.6329	-1.8655	.0627
	여학생	344	27.3488± 6.2387	-1.8822	.0603
정신적	남학생	257	27.2023± 7.4113	-3.6772	.0003
	여학생	344	29.5494± 8.1626	-3.6262	.0003
성적	남학생	257	20.6420± 6.0134	-3.5741	.0004
	여학생	344	22.4186± 6.0493	-3.5710	.0004
사회문화적	남학생	257	40.5914±12.0380	-2.0257	.0433
	여학생	344	42.5320±11.0326	-2.0514	.0407
전체점수	남학생	257	114.7899±27.3712	-3.1371	.0018
	여학생	344	121.8488±27.1841	-3.1402	.0018

에서 볼 수 있는데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에서는 '고2, 고1, 중2, 중1, 고3, 중3'의 순으로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영역에서는 '고2, 고1, 중2, 중1, 중3, 고3,'의 순으로 성적 영역에서는 '고2, 중2, 고1, 중1, 고3, 중3,'의 순으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고2, 고1, 고3, 중2, 중3, 중1' 순으로 나타나 4개 영역 모두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경험하는 학년은 고2 였으

<표3-3> 학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 (N=601)

문제영역	구분	인수	평균±표준편차
신체적	중1	134	32.336± 4.897
	중2	133	32.496± 4.437
	중3	44	31.773± 4.645
	고1	158	33.456± 4.630
	고2	93	34.935± 4.408
	고3	39	31.795± 5.069
[F=5.53 P= .0001]			
정신적	중1	134	33.007± 5.748
	중2	133	33.639± 6.238
	중3	44	32.114± 5.405
	고1	158	34.829± 6.231
	고2	93	36.355± 5.862
	고3	39	30.385± 5.547
[F=8.05 P= .0001]			
성적	중1	134	20.604± 3.831
	중2	133	22.241± 3.955
	중3	44	19.636± 3.518
	고1	158	21.601± 3.548
	고2	93	22.301± 2.915
	고3	39	19.667± 2.343
[F=8.14 P= .0001]			
사회문화적	중1	134	44.455± 7.379
	중2	133	45.910± 8.066
	중3	44	44.591± 6.528
	고1	158	47.804± 6.976
	고2	93	48.312± 6.403
	고3	39	47.795± 7.935
[F=5.32 P= .0001]			
전체	중1	134	130.403±17.777
	중2	133	134.286±18.774
	중3	44	128.114±14.789
	고1	158	137.690±17.204
	고2	93	141.903±15.771
	고3	39	129.641±17.875
[F=7.72 P= .0001]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이것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로 구분하여 4영역의 점수를 다 더하여 비교하여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표3-4>

<표3-4> 학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필요한 정도 (N=601)

문제영역	구분	인수	평균 ± 표준편차
신체적	중1	134	27.552 ± 6.269
	중2	133	26.639 ± 6.324
	중3	44	25.023 ± 6.677
	고1	158	27.127 ± 6.163
	고2	93	28.075 ± 6.500
	고3	39	24.308 ± 7.105
[F=3.05 P= .0099]			
정신적	중1	134	29.537 ± 7.621
	중2	133	27.692 ± 7.662
	중3	44	26.068 ± 7.678
	고1	158	29.589 ± 8.040
	고2	93	29.527 ± 8.070
	고3	39	24.282 ± 7.448
[F=4.82 P= .0002]			
성적	중1	134	22.657 ± 6.801
	중2	133	21.173 ± 5.246
	중3	44	19.818 ± 5.516
	고1	158	22.203 ± 6.642
	고2	93	21.323 ± 4.540
	고3	39	20.564 ± 7.144
[F=2.28 P= .0458]			
사회문화적	중1	134	43.433 ± 11.453
	중2	133	39.474 ± 9.972
	중3	44	39.023 ± 11.982
	고1	158	43.114 ± 11.959
	고2	93	41.806 ± 9.909
	고3	39	40.410 ± 15.736
[F=2.70 P= .0202]			
전체	중1	134	123.179 ± 27.008
	중2	133	114.977 ± 24.914
	중3	44	109.932 ± 25.994
	고1	158	122.032 ± 28.732
	고2	93	120.731 ± 24.996
	고3	39	109.564 ± 34.105
[F=3.60 P= .0031]			

<표3-5> 가정생활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 (N=601)

항목	매우 만족스럽다 (116)	만족스럽다 (306)	그저 그렇다 (145)	불만족스럽다 (33)	매우 불만족스럽다 (1)	F값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문제영역							
신체적	31.784± 5.035	32.529± 4.368	34.359± 4.513	35.727± 5.513	26±.000	9.44	.0001
정신적	31.845± 5.767	33.379± 5.799	35.655± 6.257	38.576± 6.005	28±.000	12.68	.0001
성적	20.509± 3.389	21.176± 3.388	22.048± 4.140	23.091± 3.835	19±.000	5.14	.0004
사회문화적	43.043± 5.916	45.487± 6.402	49.448± 8.138	54.939± 6.750	40±.000	28.98	.0001
전체점수	127.181±15.847	132.572±15.935	141.510±18.460	152.333±17.937	113±.000	22.84	.0001

<표3-6> 가정생활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 (N=601)

항목	매우 만족스럽다 (116)	만족스럽다 (306)	그저그렇다 (145)	불만족스럽다 (33)	매우 불만족스럽다 (1)	F값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문제영역							
신체적	26.560± 6.484	26.454± 6.204	27.683± 6.575	29.455± 6.892	19±.000	2.70	.0299
정신적	27.086± 6.978	27.833± 7.557	30.103± 8.613	33.727± 8.464	19±.000	7.17	.0001
성적	21.681± 5.918	21.206± 6.213	22.317± 6.107	23.030± 5.022	17±.000	1.14	.2276
사회문화적	39.121± 8.817	40.716±11.388	44.379±12.588	48.515±11.611	30±.000	7.45	.0001
전체점수	114.448±23.667	116.209±27.270	124.483±28.464	134.727±28.639	85±.000	6.33	.0001

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에서는 '고2, 중1, 고1, 중2, 중3, 고3' 순으로 정신적 영역에서는 '고1, 중1, 고2, 중2, 중3, 고3'의 순으로 성적 영역에서는 '중1, 고1, 고2, 중2, 고3, 중3'의 순으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중1, 고1, 고2, 고3, 중2, 중3' 순으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각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 .01$ ,  $< .001$ ).

또한 이것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로 구분하여 4영역의 점수를 다 더하여 비교하여 보면 역시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가정생활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5>로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F=9.44$ ,  $P < .001$ ), 정신적( $F=12.68$ ,  $P < .001$ ), 성적( $F=5.14$ ,  $P < .001$ ), 사회문화적( $F=28.98$ ,  $P < .001$ )영역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정생활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3-6>에서 보듯이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상담이나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F < 2.70$ ,  $P < .05$ ), 정신적( $F=7.17$ ,  $P < .001$ ), 사회문화적( $F=7.45$ ,  $P < .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적 영역( $F=7.45$ ,  $P < .2276$ )에서는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자가 가정

<표3-7> 학교생활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

(N=601)

항목	매우 만족스럽다 (27)	만족스럽다 (189)	그저 그렇다 (256)	불만족스럽다 (71)	매우 불만족스럽다 (58)	F값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문제영역							
신체적	30.815± 3.763	32.106± 4.623	33.121± 4.739	34.338± 4.123	34.672± 5.243	6.63	.0001
정신적	30.778± 4.379	32.508± 5.670	33.805± 5.830	36.803± 5.901	36.845± 7.574	12.34	.0001
성적	20.704± 4.656	20.810± 2.820	21.270± 3.683	22.606± 4.204	22.328± 4.269	4.50	.0014
사회문화적	43.630± 7.228	44.101± 5.758	46.750± 7.436	50.042± 7.882	50.017± 8.271	14.61	.0001
전체점수	125.926±15.706	129.524±15.128	134.945±17.300	143.789±17.968	143.862±20.878	15.39	.0001

<표3-8> 학교생활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

(N=601)

항목	매우 만족스럽다 (27)	만족스럽다 (189)	그저 그렇다 (256)	불만족스럽다 (71)	매우 불만족스럽다 (58)	F값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문제영역							
신체적	25.370± 5.865	26.508± 6.049	26.852± 6.491	27.761± 5.830	28.293± 7.952	1.57	.1816
정신적	24.000± 4.608	27.370± 7.180	28.305± 7.830	32.155± 7.830	31.138± 9.741	9.00	.0001
성적	20.741± 5.245	21.275± 5.753	21.352± 5.894	23.183± 6.497	22.828± 7.498	2.16	.0716
사회문화적	37.852± 8.113	40.624±10.820	40.973±11.270	45.577±11.023	45.483±14.591	5.15	.0004
전체점수	107.963±19.563	115.778±25.512	117.480±27.689	128.676±25.340	127.741±33.223	5.78	.0001

생활 만족도상 '불만족스럽다, 그저 그렇다,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문제 경험정도와 이에 따르는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기 중재에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교생활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3-7>과 같다. 신체적 영역(F=6.63, P<.001)과 정신적 영역(F=12.34, P<.001)에서는 학교생

활이 불만족스러울수록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성적 영역(F=4.50, P<.001), 사회문화적 영역(F=14.61, P<.001)에서는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그저 그렇다, 매우 만족스럽다' 순으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3-8>과 같다. 정신적 영역(F=9.00, P<.001), 사회문화적 영역(F=5.15,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신체적 영역

(F=1.57, P<.1816), 성적영역(F=2.16, P<.071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그저 그렇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과 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갈등으로 초래되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4.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 정도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표4-1>에서와 같이 각 영역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신체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을수록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을수록 나머지 문제영역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 각 영역별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각 영역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신체적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이 많이 필요할수록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이나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영역간의 문제 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영역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5.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에 미치는 영향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에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표5-1>, <표5-2>와 같다.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에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

<표4-1>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경험정도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

문 제 영 역	신 체 적	정 신 적	성 적	사회문화적	전 체 점 수
신 체 적		.6089*	.4276*	.4748*	.7594*
정 신 적			.5086*	.6273*	.8703*
성 적				.4938*	.6984*
사회문화적					.8579*
all *P<.001					

<표4-2>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 각 영역간 상관관계

문 제 영 역	신 체 적	정 신 적	성 적	사회문화적	전 체 점 수
신 체 적		.7668*	.4603*	.6002*	.8086*
정 신 적			.5330*	.6948*	.8773*
성 적				.7106*	.7810*
사회문화적					.9175*
all *P<.001					

<표5-1>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601)

요인	B	SEB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값
가정생활 만족도	6.0817	0.8947			
			0.1534	0.1506	54.177*
학교생활 만족도	3.5876	0.7208			
*P<0.001					

<표5-2>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601)

요인	B	SEB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값
가정생활 만족도	4.2967	1.4625			
			0.0450	0.0418	14.0738*
학교생활 만족도	3.6480	1.1782			
*P<0.001					

생활 만족도는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 중 가정생활 만족도가 학교생활 만족도 보다 1.7배정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에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의 경험정도를 사정하고 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를 파악하여 청소년 간호중재 방법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 교과목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도한 기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영동지역 4개 남·녀 중학교와 4개

남·녀 고등학교 학생 601명으로 연구도구는 김등(1990)이 연구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1997년 6월 23일부터 7월 25일 까지 2주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실수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 Stepwise 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Reliability test를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의 경험정도에 관한 영역별 항목 분포에서 대상자의 50%이상이 '가끔 혹은 자주경험'하고 있는 항목은 신체적 영역에서 전체 19항목중 10항목이며, 정신적 영역에서는 19항목 중 13항목, 성적 영역에서는 17항목 중 1항목,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30항목 중 10항목 이었고 그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 정도에 관한 영역별 항목에서는 대상자의 50%이상이 '약간 혹은 많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항목이 신체적 영역에서는 19항목 중 1항목, 정신적 영역에서는 19항목 중 2항목 이었고 성적 영역에서는 17항목 중 1항목도 없었으며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30항목 중 2항목이었다.

2)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와 그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4영역 전체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P<.001).

3)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별 문제 경험정도는 4영역 모두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많이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도 신체적 영역(P<.01), 정신적 영역(P<.001), 성적 영역(P<.05), 사회문화적 영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간 문제 경험정도와 그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는 각 영역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P<.001$ ).

5) 대상자의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각 영역별 문제경험도에서는 4영역 모두에서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문제와 관련된 영역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정도에서는 가정생활 만족도 신체적 영역( $P<.05$ ), 정신적 영역( $P<.001$ ), 사회문화적 영역(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학교생활 만족도와는 정신적 영역( $P<.001$ ), 사회문화적 영역( $P<.001$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대체적으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는 가장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가지 영역의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영역의 문제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한가지 영역의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가 높은 학생이 다른 영역에서도 상담이나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영역별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했고 특히 가정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 성장 발달 특성과 영역별로 다양하게 경험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세우고 교과목 개발과 더불어 효율적인 적용이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성장발달 특성 및 문제, 그와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정도를 재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시도해야 하겠다.

2)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한 집중적으로 연구로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3)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중재모형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한 연구를 시도해야 하겠다.

4) 위 연구결과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방안 정립의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강정아, 이상일, 고복자, 김창윤, 이 철, 한오수, 박인호(1995), 청소년기의 물질 남용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4(2):534-543

김경식(1978), 한국 중·고등학생의 신체 발육 상태, 체력검사 및 신체적 자아 사이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 17(4):386-392

김도훈, 남궁기, 오병훈, 유계준(1997), 흡연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약물 남용 프로그램의 효과. 신경정신의학 36(1):177-191

김매자(1973), 서울시내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소화기 증상 발현 상태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0(2):251-259

김명애(1984), 청소년기 발달단계를 중심으로 한 간호중재. 대한간호 23(2):20-23

김상훈, 최훈동, 김학렬(1995),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과 정신병리. 정신신체의학 3(1):28-38

김소야자, 황미희(1983), 비행청소년 발생과 가족 환경과의 상관관계연구. 간호학회지 13(1):34-41

김소야자(1985), 도시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연세간호학 논집 9

김소야자(1987),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간호. 서



- 울, 수문사
- 김소야자, 황미희, 정향인(1990), 도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사회문화적 문제경험정도 와 상담 및 교육의 필요정도. 연세대간호학 논 집 13:1-16
- 김학렬, 이민규, 박상학, 김상훈, 주경채(1993), 고 등학생 재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정신병리. 정신 신체의학 1(1):67-74
- 민병근(1979), 한국 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중단적 연구(1975년 및 1978년). 한국의 과학 12:541-555
- 민병근, 김현수(1992), 성 비행 청소년의 가족역 동. 신경정신의학 31(3):604-627
- 박용천, 김광일, 방금녀, 고복자, 김대호(1997), 고 등학생 스트레스의 횡문화적 연구 : 연변의 한 족, 조선족 및 서울의 한국인 비교. 신경정신의 학 36(2):304-313
- 박중원(1982), 청소년 정신장애 환자의 생활사건 에 관한연구. 신경정신의학 21(4):587-594
- 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1996), 청소년 자 살 기도자의 정신의학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35(6):1366-1375
- 조동환, 박영숙, 김정기(1996), 불량행위 청소년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고찰 II. 신경정신의학 35(6):1395-1405
- 조수철, 남민(1994), 소아와 청소년의 행동장애와 우울. 불안증상과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 33(6):1273-1281
- 주왕기 외 2인(1993),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 책. 한국 약물남용 연구소 71-91
- 채영래, 최수호(1982), 청소년 비행과 가족관계. 신경정신의학 21(1):86-91
- 최희정, 이대희(1982),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정신 의학적 위험도 평가. 신경정신의학 21(3): 544-551,
- 함 용 외 3인(1985), 성의식 구조 및 행동양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앙의대지 10(2):215-232
- 홍강의,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I). 서울의대 신경의학 11(1):39-47
- 홍강의, 신민섭(1994),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 정체감발달. 신경정신의학 33(6): 1378-1387,
- 홍경자,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원의 역할. 대한간호 23(2):15-19
- Ebert, D.G.(1984), Health Education in Texas. J.O.S.H. 54(8):310-311
- Fulton, G.B.(1970), Sex Education : Some Issues and Answers. J.O.S.H.
- National Professional School Health Education Organization(1984), Comprehensive School Health Education. J.O.S.H. 54(8):312-315
- Freud, A.(1958), Adolescence in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International Universites Press, N.Y.
- Machonald, D.I.(1987), Patterns of Alcohol and Drug Use Among Adolescents 34(2): 275-288,
- Oberteuffer, D.(1970), Some Things We Need and Some Things We Do Not Need 2
- Stone, L.J. and Church, J.(1968), 2nd ed., Rand om House, N.Y.

=ABSTRACT=

**A Study about the Experienced Problems and the Demands of Counseling of the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the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ies**

**Jin Kyung Kim** (Dept. of Nursing, Young Dong Junior College)

**Eun Sook Kim** (Dept. of Dental hygiene, Seoul Health Junior College)

**Jung Ae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socio-cultural problems that the adolescents have experienced and to assess the demands of counseling about the experienced problems.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descriptive-survery study. The sample size was 60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ata analysis was done by frequencies, Percen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 and Cronbach's  $\alpha$  Score was produced for the reliability of the tool by using the item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as as follws :

1. The distribution of the each item that the adolescents experienced according to th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ies was examined.  
In the physical problem category, the number of items that half and more than half of the adolescents experienced of often or frequently were 10 among all 19 items.  
In the psychological problem category, 13 item were among all 19 items.  
In the sexual problem category, 1 item among all 17 items and in the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y, 10 items were among all 30 items.
2. The distribution of the each items that the adolescents wanted to the counseling according to th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ies was examined.  
In the physical problem category, the numbers of the items that half and more than half of the adolescents wanted counseling were 1 among all 19 items.  
In the psychological problem category, the numbers of the items that half and more than half of the adolescents wanted counseling were 2 items among all 19 items.  
In the sexual problem category, 0 item among all 17 items and in the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y, 2 items were among all 30 items.
3. In the comparison of the female student and male student about the experienced problems and the demands of counseling according to th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all categories between groups( $P<.001$ )

4. In the comparis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demands of counseling according to th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ies( $P<.001$ ).

Particularly, grade II of high school students have experienced problems according to th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all categories( $P<.001$ ).

5.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erienced problem and the demands of counseling according to 4 categories, there was the positive correlation at  $P<.001$  level.
6. The less the satisfaction for family and school life, the more experienced problems according to th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and socio-cultural problem categor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all categories( $P<.001$ ).